

2008년 10월 13일 월 말씀

목사님들이 전하는 주일 말씀에 따라서 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자기 관리도 하고 남 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심을 때 심는 날은 그 때만 필요하지만 나무가 다 클 때까지는 백년 천년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만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인생,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다 관리입니다. 나라에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리 하려고 수 만 명씩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관리도 남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 관리하다보면 자기 관리도 됩니다. 그러나 남 관리만 한다고 해서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잘 들 해야 합니다. 관리 할 때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책도 한 번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슬슬 읽는 것과 세밀하게 읽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도 깊이 읽어보듯 사람을 다룰 때도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 인생들 평생 다루어도 깊이 못 다룹니다. 사람끼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다룰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13억이란 인구를 관리해서 끌고 나갑니다. 공산주의 법으로 하던지 자기 자체 법으로 하던지 간에 관리를 하기에 끌고 나갑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관리는 하기만 하면 잘 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린다’ ‘헛갈린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보다 더 성가시게 합니다. 다치거나 하면 부모에게 막 책임지라고 따지면서 자기 하나 빨리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자동차 사고도 크게 잘 안 납니다. 섭리도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각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관리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관리 해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91세인데도 관리 받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보통해서는 못 배웁니다. 본인이 겪어야 그제서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도둑을 맞아봐야 잠 못 자면서 물건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해봐야 압니다. 그럴 줄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위치와 환경에서 본인이 더 연구하면 더 잘 압니다. 지도자는 거기까지 다 못 봅니다. 지도자는 큰 방향만 봅니다. 나 같은 입장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거 방향 잡아주러 온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는 것 먹고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작은 것은 안 해주십니다. 태 밖으로 나오면 숨을 본인이 쉬어야지 엄마가 쉬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맨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달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해야지 해줄 것을 해주십니다. 인간이 어려울 때 인간이 못하는 것, 자기가 실컷 했는데 안 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불쌍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막 걱정하면서 또 잘 되면 시기질투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잘 되니까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 민족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산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사람만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세계 청중을 이끌고 왔는데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잘난 체 하면 또 막 뭐라고 하고 못 난체하면 불쌍하다고 하고 온 인류의 심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일본. 다 열심히 하고 천천히 잘 해서 일본식에 맞게 해나가야 합니다. 거기는 10년 20년 가치고 되지 않습니다. 반세기를 가야 합니다. 우리 당세 때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두고두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세 때는 겨우 방향 잡아주는 것 밖에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1세기는 뛰어야 합니다. 보통 반세기 정도 뛰고 갑니다. 반세기 뛰고 가는 것도 많이 뛰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반세기 때 끌고 겨우 어느 정도 방향 잡아주고 가면 후손들이 도랑길 난 것같이, 물길 난 것같이, 산 길 난 것같이 계속 다녀서 길을 닦던지 찾길을 닦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방향을 따라서 각 나라에 맞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는 샘터다. 나무가 많이 있다 하면서 본인들이 잘 보면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조종사가 보는 것이 따로 있고 본인들이 구경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7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400개입니다.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대단한 말씀을 주었으니 대단한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

대학부들 모임도 하고 월명동에도 자주오고 하십시오. 대학부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한테 많이 배워야 합니다.